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11월 일자리 22만7천개 증가... 허리케인과 파업 회복
- Bloomberg: 장기적인 미 실업 상황, 유연한 노동 시장에 부담
- Bloomberg: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금리 인하해야 할 긴박감 없다”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가격 랠리... 투자자들 이달 0.25% 금리 인하에 베팅
- Bloomberg: 연준 금리 인하 예상으로 증시 상승세
- Bloomberg: BofA, 미주식과 가상화폐에 거품 경고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중국 관세에 640억불 구멍 예상

[인공지능]

- FinanceYahoo: 마이크로소프트 “내년에 AI 큰 변화 온다”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6.69%... 10월 이후 최저치

[오일]

- Bloomberg: 사우디 “OPEC+의 생산 지연은 2025년 초 수요 약세 반영”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날아가는 미국의 자동차
- Bloomberg: 머스크의 xAI, 60억 투자 받다
- Bloomberg: 웨이모, 마이애미에 로보택시 서비스 계획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Employers Added 227,000 Jobs in November **11월 일자리 22만7천개 증가... 허리케인과 파업 회복**

- 노동시장이 지난달에 회복됐다. 허리케인으로 타격 입은 근로자들이 돌아 오고, 수천 명의 보잉사 파업자들이 복귀한 상황에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계절 조정치로 22만7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당초 예상치와 부합되는 경조한 일자리 성장이다. 전월에 날씨와 허리케인 영향으로 3만6천개만 증가한데 비해 큰 폭의 반등세다.
- 일반적으로 파업과 날씨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실업률은 4.1%에서 오히려 4.2%로 증가했다.

WSJ 기사

Bloomberg: Unemployed for Longer Clouds the Resilient US Labor Market**장기적인 미 실업 상황, 유연한 노동 시장에 부담**

- 미국의 경기가 좋은데 일자리는 찾기 힘들다. 많은 미국인들이 4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에 실업률을 4.1%로 예상했는데 4.2%로 상승했다. 작년 초, 50년 사상 가장 낮은 수치인 3.4%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 연준 파월 의장은 이번 주 수요일에 “실업률이 몇 년 전에 비해 약간 높은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 실업자 7백만명 중의 40% 이상이 15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특히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비율은 23%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들은 많은 인력을 해고하지 않지만, 채용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Daly Says No Sense of Urgency to Lower Interest Rates**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금리 인하해야 할 긴박감 없다”**

-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 Mary Daly는 “금리를 내려야 할 긴박감이 없다.”라며 연준 의원들이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우리는 연준 정책을 신중하게 계속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경제와 향후 예상하는 경제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그는 오늘 17일부터 양일간 연준 관리들 최상의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면 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Treasuries Rally as Traders Boost Bets on a Fed Cut This Month****국채 가격 랠리... 투자자들 이달 0.25% 금리 인하에 베팅**

- 오늘 11월 미 고용 숫자 발표가 나온 후에 투자자들이 연준이 이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에 베팅하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 연준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의 경우 오늘 금요일 오전에 4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10%를 기록했다. 트레이더들은 오늘 보고서 발표 전에 연준 회의에서 당초 16베이시스 포인트로부터 현재는 21베이시스 포인트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연준이 0.25% 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시장은 연준이 이달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인하 폭은 0.88%포인트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ocks Rise as Jobs Boost Bets on December Fed Cut: Markets Wrap

연준 금리 인하 예상으로 증시 상승세

- 오늘 발표된 보고서로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식은 사상 최고치로 향하고 있으며,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 주식은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올해 들어 57번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올해 랠리는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주식 수익률은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 스왑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이달 금리 하락 폭을 20베이시스 포인트로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BofA's Hartnett Warns Froth Is Building in US Stocks, Crypto BofA, 미주식과 가상화폐에 거품 경고

- 강력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가상 화폐와 미 주식 자산에 거품이 끼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Michael Hartnett는 경고했다.
-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S&P500 주가 순자산 비율은 올해 5.3배로 기술주 버블이 엄청났던 지난 2000년 3월의 5.5배에 근접하고 있다.
- 그는 S&P500이 6,666에 도달할 경우 내년 초에 주식 가치에 비해 '오버슈트'의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6,666은 현재 수준보다 10% 상승한 수치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Trump's China Tariff Plan Has \$64 Billion Import Hole**트럼프 중국 관세에 640억불 구멍 예상**

-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중국산 수입량 과소 집계, 소액 거래 관세 면제 규정 (De-minimis) 등의 허점으로 인해 수백억 달러 상당의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 2020년 초부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데이터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관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 업체는 수입량을 과소 보고하고, 세금 환급을 위해 중국업체는 과대 보고하기 때문이다. 올해 첫 10개월 동안 해당 격차는 6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액 거래 관세 면제 규정’은 800달러 미만의 소형 소포는 미국에서 집계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다. 미 세관 및 국경 순찰대에 따르면 최소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올해 첫 9개월 동안 약 480억 달러 규모의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왔다.
- 대부분 Shein이나 테무와 같은 저가 쇼핑 앱을 이용한 중국산 제품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Second Measure의 소비자 카드 거래 분석에 따르면 11월 내 미국 내 테무 매출은 작년보다 31% 증가했으며, Shein은 20% 증가했다.
- 즉, 수백억 달러의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데이터는 미국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왜곡된 무역 데이터가 미국 정책 설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FinaceYahoo: Big changes are coming to AI in 2025: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내년에 AI 큰 변화 온다”**

-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내년에 AI 모델은 더 복잡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더 정교한 방식으로 추론한 환경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자동 또는 반자동 앱인 이른바 AI 도구들은 뛰어난 성과를 보이면서 고객의 요청을 우선순위로 분류하거나 직원의 비용을 추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 AI는 점차 멀티모델이 되면서 텍스트와 비주얼, 그리고 오디오 입력과 상호 작용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곧 출시되는 Copilot Vision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 AI 데이터 센터도 에너지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냉각에 물이 필요 없으며 저탄소 소재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FinanceYahoo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Fall to Lowest Since October, Hitting 6.69%

미 모기지율 6.69%... 10월 이후 최저치

- 미 모기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6.69%로 10월 2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하지만 9월에 비해 여전히 대출 비용이 높다. 모기지율 완화도 어려워 보인다. Redfin은 2025년까지 모기지율이 7%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 트레이더들은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를 두 번만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Realto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Joel Berner은 “판매용 주택 공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매물 가격과 모기지율이 높아 구매자들이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PEC+ Delay Reflects Early 2025 Lull, Saudi Prince Tells CNBC

사우디 “OPEC+의 생산 지연은 2025년 초 수요 약세 반영”

-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OPEC+의 증산 계획 연기는 내년 초 계절적 수요 약세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빈 살만 사우디 왕자는 “1분기는 재고를 쌓는 분기다. 생산량을 늘리기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세계 석유 수요는 보통 겨울철 연료 소비가 줄어들면서 1분기에 줄어든다.
- OPEC+는 어제 목요일, 4월까지 증산 계획을 연기하고, 증산이 시작되면 그 속도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OPEC+는 중국 수요 감소와 미주 지역 공급 증가로 인한 원유 가격 압박을 받고 있다.
- 분석가들은 OPEC+의 증산 계획이 아니어도 2025년 세계 석유 시장은 과잉 상태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mericans' Cars Keep Getting Older—and Creakier

늙아가는 미국의 자동차

- 미국의 자동차들이 노후화되고 있다. 30년 전 승용차 평균 연식은 약 8.4년이었지만, 현재는 13.6년이다. 물론 차를 잘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다.
- 하지만 인플레이, 금리 인상, 공급망 문제로 미국인들이 신차를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크다. 경제 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 1천7백70만 대였던 4년 연평균 차량 판매량은 현재 약 1천5백50만대이다.
- 미국의 자동차들이 '늙어가면서' 자동차 정비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권장 서비스 주기를 미루고 있다. 차량 정보 회사 Carfax는 최근 미국 자동차의 30%가 타이어 교체 시기를 지났고, 19%가 오일 교환 시기를 지났다고 밝혔다.
- AutoZone의 CEO Philip Daniele은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유지보수 및 재량 품목을 미룬다. 그러다가 안 좋은 경제 주기가 더 진행되면 큰 수리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리를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Musk's xAI Wraps Up \$6 Billion in Funding in Latest Round

머스크의 xAI, 60억 투자 받다

- 일론 머스크의 AI 개발사인 xAI가 최근 60억 달러의 투자를 받으면서 수개월 동안 4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
- xAI의 주요 제품인 챗봇 Grok은 X(전 트위터) 유료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 머스크는 2023년 xAI를 설립하고 공격적으로 자금을 모았다. 투자금 중 적어도 일부는 올해 초 Memphis의 새로운 슈퍼컴퓨터 시설을 여는데 투자됐다.
- 이 시설의 입지가 커지면서 엔비디아, 델(Dell),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 다른 주요 기술 회사들이 이 지역으로 모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aymo Unveils Plan to Bring Its Robotaxi Service to Miami

웨이모, 마이애미에 로보택시 서비스 계획

- 웨이모가 마이애미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어제 목요일 발표에서 웨이모는 내년 마이애미에서 무인 재규어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웨이모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실험하고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내년에 애틀랜타와 오스틴에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다.
- 웨이모는 현재 치명적인 사고 없이 매주 15만 건 이상 운행하고 있다. 로보택시는 앞으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달러 패권 도전하면 관세" 트럼프 오포에...'탈달러' 더 빨라지나
"달러 대안' 모색 움직임 빨라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非)서방 신흥국 연합체 브릭스(BRICS)를 향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경고한 가운데, 이러한 오포가 오히려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브릭스가 국제교역에서 달러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